



문인 60명 배출…‘光高 문학관’ 문연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 고등 학교 출신 문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문학관이 마련된다.

광주고등학교(교장 오덕렬)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내 도서관 2층에서 ‘광고 문학관’ 개관식이 열린다.

110여명의 공간을 리모델링한 광고문학관에는 광주고 출신 문인들의 사진과 작품집, 애장품, 육필 원고, 학교 관련 자료 등이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이다.

1950년 개교 이래 광주고가 배출한 문인들은 60여명. 전국적으로도 고등학교 한 곳에서 이처럼 많은 수의 문인들을 배출한 곳은 드문데다 모교에 문학관을 만든 곳은 염상섭, 현진건, 이상, 조정아 등이

광주고 도서관내 110명 규모…광주·전남 고교선 처음

사진·작품집·애장품·육필 원고 등 전시…30일 개관식

졸업한 서울을 보성고 등이 있을 뿐이다. 보성고의 경우 지난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지어졌다.

광주고 출신 문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박성봉(2회·2002년 작고), 정현웅(2회), 이성부(9회), 민용태(10회), 조태일(이상 시·11회·1999년 작고), 문순태(9회), 김형수(이상 소설·27회), 마삼렬(5회), 이이화(7회), 박석무(이상 수필·11회), 윤삼현(아동문학·21회), 김종배(2회), 김우창(이상 평론·3회)씨 등이다.

오덕렬(13회) 현 교장 역시 수필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오 교장은 “지난 2005년 초부터 (문학관 조성) 이야기가 오가다가 지난해 5월부터 자료 수집 등을 시작했다”며 “광주고 출신 문예부 활동이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곳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통을 잊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총 동문회와 연계해 문학 뿐 아니라 회화나 건축 등 예술 전반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나아가 광주고의 역사를 망라한 ‘광고 역사기념관’(가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등 교내 동인 활동도 활발했다. 문학관에는 박성봉, 조태일씨 등 작고 문인들의 공간과 문예부를 이끌어줬던 은사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된다.

오 교장은 “지금도 문예부가 있긴 하지만 논술과 토론 등이 주를 이루는 등 순수 문학은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광주·전남 문학의 큰 산맥인 광고의 전통을 이어살리고 후배들에게 문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총 동문회와 연계해 문학 뿐 아니라 회화나 건축 등 예술 전반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나아가 광주고의 역사를 망라한 ‘광고 역사기념관’(가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거실에 그림 한점 걸어볼까

갤러리 자리아트 ‘아트페스티벌’

50만~100만원 작품 200점 출품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미술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작품도 구입할 수 있는 미술품 시장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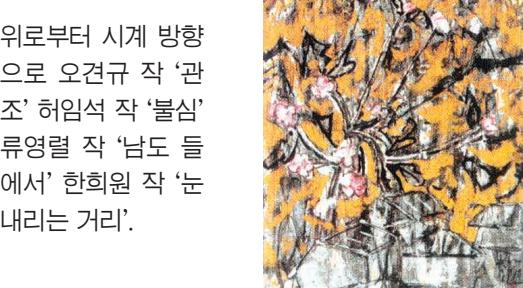
갤러리 자리아트(관장 최만길)가 오는 2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코스코홀에서 ‘2007 갤러리 자리아트 아트페스티벌’ 행사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광주와 전남은 물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 100여명의 작품 200여점이 출품된다. 출품작은 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 미술 전 분야.

지역 작가들의 역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특히 미술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지역미술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관람객들이 미술품을 부담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10호 미만 작품들이 출품됐다. 가격은 50만~100만원대.

참여 작가는 김효삼, 김해성, 강승평, 고광임, 남선용, 박광원, 신철, 오경규, 이혜경, 이태길, 위진수, 정성봉, 정예금, 조근호, 조진호, 주재현, 장현우, 채종기, 한희원, 허임석씨 등이다.

갤러리 자리아트 최만길 관장은 “지역 작가들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술품 구입을 통해 작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062-225-4003.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성자씨 창작동화집 ‘두레실’ 출간

영광 출신 동화작가 이성자(58·광주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씨의 새 창작동화집 ‘두레실 할아버지의 소원’(해피북스 퍼냄)이 출간됐다. 삽화는 전필식씨가 그렸다.



동화는 이복이 고향을 둔 한 할아버지의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생 현수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잃은 뒤 우울해하다 무작정 가출을 하는 일이 찾아진다. 택배 형의 도움으로 매번 집에 돌아오지만, 할아버지는 고향인 “두레실 마을로 데려다 줘”라는 말로 가족들을 안타깝게 한다.

저자는 지난해 동시집 ‘키다리가 되었다가 난쟁이가 되었다가’(문원펴낸)로 제5회 우리나라 좋은 동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세계 차(茶) & 흄데코’ 전 염숙씨 등 강연

오는 2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차(茶) & 흄데코’ 전이 일반인에게 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茶) 알고 마셔요’ 강좌 및 시음회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3시에는 염숙(영원문화재단 광주·전남지부장·광주대 겸임교수)씨가 강의를 하며 흄차 시음회를 갖는다.

또 25~27일에는 박은순·송희자씨 등이 강의를 하며 오틈차·꽃차·차음식을 시음·시식하는 코너를 운영한다. 문의 062-611-2123.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10 훤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증겸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LC타워(주)

☎ (02) 972-8004, 훤 010-7154-69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유명이커운집

■ 각종 학원 임대 50~200평

■ 복의원 임대 50~250평

■ 라이브홀, 스카이라운지 120~230평

■ 사무실 임대 27~400평

■ 사업 동업자 구함

좋은 업종이 있어도 초기 자금(부담되는 임대료)때문에 막걸리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교환 환영

상가와 어떤 부동산 이든 교환 환영

- 중개업자 중개 환영 -

일가공인중개사

☎ (02) 824-8126 훤 011-609-0896

(광주체국부동)

상가건물 매매

· 월평균 신세대 75평 5층건물 2억/1,700만 원/21평

· 대인동 대로변 75평 3층 88평/800만 원/20평

· 대인동 1층 15평 3층 대로변 50평/2층 70평/30평

· 황금동 판교역 인근 89평 29/900만 원/20평

· 광진구 대화동 112평 12층 단층 10평 10억

· 조대 대로변 대지 220평 단층 150평/500만 원

· 광진동 대로변 10평 대로변 30평 단지 400만 원

· 대인동 대로변 75평 15평 10평 100만 원

· 대인동 대로변 75평 15평